
「비상경제회의」 운영방안

2020. 3. 19.

관계부처 합동

1 운영배경

□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(pandemic) 단계로 악화 (WHO 팬데믹 선언, 3.11)

○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*되는 가운데,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**되는 등 실물경기침체-금융불안간 악순환 우려

* OECD는 금년 세계성장 전망치를 2.9→2.4%(△0.5%p)로 대폭 하향 조정(3.2)

** 주요국 주기하락률(2.20~3.17, %): (韓)△24.3 (美)△31.2 (유로)△34.1 (日)△27.3 (中)△6.6

⇒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한 '비상경제회의' 출범

2 운영방안

◇ 위기대응 **최고 의사결정 기구**(경제 중대본)로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, 신속한 위기대응/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

□ 참석대상 : 대통령(주재)

(부처)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, 산업부·고용부·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금융위원장

(대통령비서실) 비서실장, 정책실장, 경제수석

※ 필요시, 관계부처 장관,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, 정책기획위원장, 경사노위원장, 한은총재, 경제단체장, 양대노총 위원장, 민간 전문가, 연구기관장, 기업인 등 참석

□ 개최주기 : 주 1회 개최 원칙, 3개월 운영 후 필요시 연장

□ 중점 논의의제 : 위기상황 긴급대응 및 경제 살리기

분야	논의 의제 (예시)	
위기 대응	· 금융/외환시장 안정화 대책	· 피해업종/분야별 지원방안
	· 민생안정대책	· 기업·가계대출 점검 및 대응
	·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방안	· 저소득/취약계층 지원방안
경제 살리기	· 내수 활성화 방안(소비·투자 등)	·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
	·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	· 일자리 창출대책

◇ 비상경제 상황대응에 중점을 두기 위해 기존 '경제활력대책회의
겸 경제관계장관회의'를 '위기관리대책회의'로 전환

□ 참석대상 : 부총리(주재)

과기부·행안부·문체부·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·국토부·
해수부·중기부·국조실·금융위 등 12개 부처 장관,
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

※ 위기대응 직접 관련 부처로 구성하되, 필요시 참석자 추가

□ 개최주기 : 주 1회 개최 원칙

□ 논의 의제

① 「비상경제회의」 상정안건 사전조율 + 후속조치

② '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등

논의 의제 (예시)

- 서비스산업 혁신
- 바이오산업 혁신
- 규제혁신
- 사회·기술변화 대응
- 구조개혁 추진
- 대내외 경제·금융 주요 이슈 점검 및 대응